

## 시인과 작곡가의 만남

나 운영

성남교회 성가대 지휘 근속 32년 동안에 나는 김정준 목사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시인과 작곡가의 만남이었기 때문인가 보다. 한동안 성남교회에서는 헌금 찬양은 으레 김정준 목사님 작사·나운영 작곡의 노래를 불렀고, 특별찬양 때에는 「세상의 빛」, 「푸른 목장 양떼들이」, 「축복받은 사람은」, 「아침 찬송」 등을 즐겨 불렀다.

목사님은 음악을 좋아하셨고 특히 학생 시절에는 악보 프린트로 고학을 하셨다는 사실이 『조활용 편 200곡집』(1937)의 서문에 밝혀져 있다. 목사님은 예배에 있어서 설교와 특별찬양의 조화를 위해 남달리 신경을 쓰셨다. 즉 성가대의 특별찬양과 그날의 설교 내용이 잘 맞아야만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늘 고민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은 묘안을 생각해 내셨다.

즉 예배 순서는 종전대로 하되 특별찬양이 끝나고 설교를 시작하실 때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 특별찬양과 설교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개발(?) 해 내셨다. 이렇게 되니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것이었다.

목사님은 물론 원고 설교를 하셨지만 원고를 그대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열정적으로 — 실감 나게 읽어서 매우 감격적이었다. 그러나 고저·강약·속도·음색 등의 변화가 없이 처음부터 높고 큰소리로 점점 빠르게 외치시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처음에는 긴장해서 듣다가도 그만 지쳐버려 나중에는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달리 음성이 좋으신 테너인데 크레센도(점점 세게)와 아첼레란도(점점 빠르게)로 설교하시다 보면 목소리 소리가 되어버려, 기진맥진 상태에서 설교를 마치시는 경우가 많아 애처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김 목사님은 '찬송가 작사'의 제 1인자였다. 그 수많은 가사 중에서 내가 작곡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빛, 헌금 찬양, 혼례 찬송, 아침 찬송, 은총 무한, 찬송하며 살아가자, 병상 찬송, 갈급한 심령, 주의 나라, 오직 예수, 하나님의 자녀, 선교 찬송, 은혜 무궁, 우리 비록 약하나, 주의 전에 나올 때, 푸른 초장 양떼들이, 축복받은 사람은, 캐나다 선교 60주년 기념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새 역사 25년가, 한국 신학대학 교가

이 중에서 특히 「아침 찬송」은 끈질긴 투병생활 중 아무래도 오늘 밤을 못 넘기리라 생각했는데, 깨어보니 찬란한 아침이어서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즉흥적으로 지으신 후 사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가사를 보내주셨던 것이다.

나는 이 가사가 마음에 들어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다음 "제14회 신작성가 월례 봉헌예배"('80.12.21) 때에 초연하고, 바로 다음 날 녹음테이프를 들고 제일병원 입원실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들려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다. 그런 뒤 얼마 안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다. 이 「아침 찬송」을 들려드리기 위해 찾아뵈었던 날이 목사님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시인이 많으나 찬송가 가사를 쓰는 사람이 적고, 특히 목회자 중에서는 더욱 드물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서는 김 목사님이 가장 좋은 가사를 가장 많이 쓰셨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침 찬송」은 어느 누가 들어도 한국 사람의 작곡이요, 한국찬송임을 직감할 것이다.

첫째로 세마치 장단 - 타령 장단 - 굿거리 장단으로 되었고, 둘째로 Fa, Si, Si<sup>b</sup>음이 순간적으로 나올 뿐, 멜로디가 대체로 계면조로 되었으며, 셋째로 3화음의 3음을 생략해서 3화음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거나 대위법적

처리를 해서 멜로디와 화음이 잘 어울리도록 하였는데, 이 찬송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아니 세계 각 나라에서 많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 목사님께서서는 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찬송가 가사를 쓰셨다. 사모님 생존 시에 직접 건네받은 유고 중에서 '89년 이후에 작곡, 발표한 것이 「갈급한 심령」, 「주의 나라」, 「오직 예수」, 「은혜 무궁」, 「우리 비록 약하나」인데 남은 수십 편의 가사에 계속 작곡하여 김 목사님의 은혜에 보답코자 한다.

〈만수 김정준 논집 「신학과 경건」, 1991.11.25〉